

## 東西古今 思想家 列傳(二)

X Y Z

### ◇파스칼

(Blaise Pascal, 1623-1662)

佛蘭西의 數學, 科學, 哲學者兼 文學者. 크레루몬의 有數한 法官의 집에 태어난 早熟의 天才. 파스칼이 그와 갖치 大成을 한 것은 傳혀 그 父親인 老파스칼의 教育 方針이 조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老파스칼은 아들이 生來에 몸이 弱한 것을 생각하고 달은 學門은 같으키면서(學校에 보내지 아니하고 自己 손수) 數學은 通히 가르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파스칼의 天才는 겨우 한번 幾學의 漠然한 說明을 듣고 나서 獨力으로 유-크리트 幾何學 第二卷 第三十二 命題에 相當한 곳까지 풀었다. 이것이 그가 十二歲 째다. 또 食卓에서 偶然히 생각을 어더 「音響論」을 쓴 것도 十二歲 째다. 有名한 丹錐 曲線論을 쓴 것이 겨우 十六歲. 이 外에 計算器의 發明. 「파스칼 原理」의 發見. 싸이폰原理의 發明 等 科學에 對한 貢獻이 만타.

파스칼은 理性的 科學者이면서 反理性的인 더구나 神秘家인 잔센敎의 熱々한 信徒이였다는 것은 재미있는 對照다. 早熟의 탓도 아니였스나 一六六二年 八月 十九日에 三十九歲라는 壯年으로 永眠하였다. 著書는 만히 잇스나 重要한 것은 「푸로반살의 書簡」「파스칼 隨錄」等이다.

### ◇카이젤

(Georg Kaiser, 1878-)

獨逸 表現派 劇 作家. 마그데쉴그에서 商人의 집에 出生 二十歲 째에 商業 見習으로 南米 알젠티의 首都에 가서 잇다가 風土病으로 三年만에 歸國.

二十五歲 째에 處女作 「校長 크라이시스트」를 發表하고 一九一七年에 「카레-의 市民」을 上演하자 그의 名聲은 一躍世界的으로 떨치어 합트만을 凌駕하게 되였다. 勿論 獨逸의 만흔 表現派 作家와 한가지로 社會主義者다. 그러나 그를 前街的 푸로레타리아 作家라고 볼 수는 없는 點이 만히 잇다. 暴

露의 意圖에서 나온 쌀조아 社會의 悲劇(「아침부터 저녁까지」)이나 金錢에 對한 呪詛(「아침부터 저녁까지」)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만다.

形式으로는 極히 理論的으로 構成되어 難解한 輪廓을 가지는 表現派 作家 中에도 한 異彩를 發하고 있다. 代表作으로는 「카레-의 市民」「아침부터 저녁까지」「瓦斯」「歐羅色」「유혹」等이요 全部合하면 三十餘篇이나 된다.

#### ◇렌트겐

(Wihelm konrad Ro-ntgen, 1845-1923)

獨逸의 理學者. 렌트겐線(俗稱X光線)의 發明者. 三月二十七日 西部獨逸의 렌넵에서 出生. 一八六九年 瑞西의 쭈리히大學에서 學業을 마친 後에 기-센 등의 大學 教授가 되었고 一八九九年에 문헨大學의 實驗 物學의 教授가 되었다. 그 동안에 「氣滯의 定壓」「結晶體의 熱傳導」「氣體의 熱吸收」「光의 磁氣回轉」등 物理學에 關한 重要한 研究를 「物理學 年報」에 發表하였다.

그가 世界的 驚異인 X光線을 發見한 것은 一八八八年 기-센大學의 教授로 있던 새요, 發表는 同年十一月 벨츠쉴그에서 열린 物理學會에서다.

本來 X光線(X=Strahlen)이라는 것은 植物質은 勿論이요, 皮膚, 筋肉까지도 透過하여 骨格을 外表로부터 照射할 수 있는 光線이래서 그러케 命名한 것이다. 그것을 뒤에 發見者의 이름을 부치어 렌트겐線이라고 하였다. 이 功勞로 英國의 王立學會로부터 란포-드 賞, 콜롬비아大學으로부터 퍼-너-드 賞을 바뎠다.

#### ◇콘트

(August Comt, 1798-1857)

佛蘭西의 哲學者요, 社會學의 創始者이며 實證哲學의 道唱者. 몬베리-에서 出生하였고 一八一四年부터 巴里大學에서 教學을 배웠다. 一八一五年三月 나폴레옹이 엘바島를 脫出하여 巴里로 들어오자 熱々한 共和主義者인 콘트는 軍隊에까지 들어갔다. 一八二六年에 發狂하였으나 未久에 恢復.

콘트가 상시몬과 汲히 사귀이기는 하였으나 自己 스사로는 社會主義와는 旣 別한 길을 밟았느니라 하고 미뎠다. 그러나 그는 社會學의 始祖인 同時에 無意識한 中에 뒷 날의 社會主義에 조흔 助言者이었던 세움이다. 그가 道唱한 인터내셔널리즘이라든가 反軍國主義라든가 푸로레타리아의 一時獨裁라든가 제너랄 스트라이크라든가하는 題目은 더구나 만흔 功을 끼치었다.

콘트는 各方面에 만흔 研究가 잇스나 主된 것은 社會學이요, 그의 中心思想은 空想的 社會主義에 각가운 것이다. 이 手段으로 그는 實證哲學에서 出

發하였다.

콘트는 絶對의 本體를 차르려하는 神學이나 形而上學을 排斥하고 現實에 立脚하여 猛極的으로 個個現像의 關係를 發現하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法則을 把握하려 하였다. 그의 學問 發遠의 三階段이라는 第一神學時代, 第二形而上學時代, 第三實證時代라는 것은 그가 道唱한 人類家의 說明을 爲한 것이요, 이 人類家は 콘트의 社會 改造의 唯一한 手段이다.

主要한 著書는 「實證哲學」「實證政治學」「實證主義問答」「新社會에 必要한 科學的 事業의 計劃」等.

#### ◇말더스

(Thomas Roehrt Malthus, 1766-1834)

英國의 經濟學者. 二月十四日 런던 郊外 사리에서 그곳의 有識者요, 휴-口과 交際가 잇스며 루소-의 私淑家인 제니엘.말더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一七八四年에는 켈쑤리씨大學에 드러가 哲學과 神學을 배우고 卒業後 故鄉에 도라와 牧師가 되었다. 일즉부터 著述에 뜻을 두어 一七九八年에 그의 大著「人口論」第一版을 匿名으로 發表하였다. (그의 나희 겨우 二十三歲) 그 뒤에 第一版과는 別書와 가튼 感이 잇는 第二版을 一八〇三年에 말더스 本名으로 發表하였다.

一八〇五年에는 東印度會社에서 創立한 헤-리-베리-大學의 史學 及 經濟學教授가 되어 爾來 三十年間 續勤하는 동안에 王立 文學協會의 特待 會員 伯林 學士院의 會員이 되었고 一八三年 二月 十九日에 病으로 大陸에 건너가 療養하다가 싸츠에서 永眠하였다.

그의 中心思想은 主著「人口論」에서 엿볼 수가 잇다. 人口論의 原名은 「人口의 原理에 關한 一論」別名은 그것이 人類의 幸福에 미치는 過去 及 現在의 諸結果에 關한 一見解附 그것이 惹起하는 바 害惡의 將來에 잇서서의 除去或은 輕減에 關한 吾人의 豫想에 對한 研究」라는 길다란 일흠이다. 內容은 간단히 말하면 「人口는 幾何的 級數로 增加되는데 食糧은 算術的 級數로 박게 增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人間社會에는 必然的으로 食糧의 不足이 생기고 이 食糧의 不足에서 人間社會의 罪惡이 생기어한다. 그럼으로 이것을 豫防하자면 사람이 스사로 情慾을 自制하여 人口 過多의 自然力을 막어야 한다……는 것이다.

主著는 上記「人口論」이 잇고 그 맞게 「經濟原論」「穀物法論」「地代論」「救貧法論」等.

#### ◇맑스

(Heinrich Karl Marx, 1818-1883)

누구나 잘 아는 近世 科學的 社會의 國境에 각가운 트리엘에서 猶太系의 변호士 집에 出生. 처음 쾰른과 伯林의 兩大學에서 名義는 法律의 專攻이었으나 其實 時間의 大部分 歷史와 哲學의 研究에 드리었다. 哲學 中에도 헤겔의 研究야말로 그가 後日에 변증法的 唯物論의 學說을 세우는데 根本的 힘이 된 것이다.

一八四二年에 라인新聞의 寄稿者되고 뒤이어 그 主筆로 드러갓다가 다시 巴里로 가서 經濟學과 社會主義의 研究에 沒頭하였다. 맑스主義理論과 唯物史觀의 基礎는 實로 이 冊의 研究에서 어든 것이다. 그는 巴리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의 社會主義者와 交遊하였으며 푸트-돈관느 밤을 새워가며 討論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冊에 그의 平生의 共勞者요, 조흔 친구이며 맑스主義大成에 업섯다면 아니 될 人物인 Engels를 만난 것이다. 一八四五年에는 巴里에서 追放을 當하여 四方으로 浪轉하면서 쾰른에도 가서 잇섯고 케룬에도 머물다가 필경 런던에 定住하게 되었다.

그 동안 그는 社會主義의 實際 運動에도 만히 힘을 썼고 런던에 定住한 뒤에도 그것을 손쓴흔 것은 아니나 末年은 大概 著述과 研究로 보내었다.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조흔 동무인 Engels가 잇기는 하였으나 그가 런던에 定住한 一八六〇年 前後의 比較的 평안時代 以外에는—더구나 末年에는 貧窮과 過勞와 病으로 매우 悲慘하였다.

中心思想은 여기에 紹介할 것이 업고 主著는 「資本論」「經濟學批評」「剩餘價値學說史」「共產黨宣言」「哲學의 貧窮」「神聖家族」等.

#### ◇陶淵明

(字는 元亮 名은 潛 365-427)

中國, 韓時代의 詩人이요, 哲學者. 東晉의 哀帝 興寧三年에 濟陽의 柴桑이라는 곳에서 晉의 大司馬 侃의 曾孫으로 태어났다. 우리 詩調에 「柴桑里五柳村에 陶處士의 몸이 되야 줄 업슨 거문고를 소래업시 집혔더니 白鶴이知音는지 오락가락」이라는 一首가 잇는데 이것은 陶淵明을 比較的 잘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行動에 잇서서 儒敎的이었으나 其實思想은 老莊의 色彩가 몹시 濃厚하다. 그리하여 그의 詩에는 자조 厭世的 人生觀이 홀운다. 그의 「武陵桃源記」는 한 理想村을 그린 것으로 政治나 煩惱스런 禮節의 拘束을 버서나 自然을 벗 삼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平和롭게 生涯를 보내는 것이 人生의 極致라고 說하였다. 그 自身이 젊어서는 官職에 잇섯든 적

도 잊섯스나 곳 마리고 一生을 五柳村에서 閑雲과 野鶴을 벗 삼어 보내었다.  
著書는 「陶淵明集」「搜神記」等.

◇헤-겔

(Georg Wilhelm Freidricl Hegel, 1770-1831)

獨逸의 哲學者. 스투트갈드에서 出生. 家系는 未詳. 셸링과는 류-빙겐大學의 同窓. 神學, 哲學, 自然科學을 研究하면서 特히 칸트와 루소-에 만흔 興味를 가렷섯다. 大學을 나와 伯林에서 家庭 教師로 잇는 동안 非天才的인自己를 鞭撻하여 政治學까지도 研究하엿고 그 동안까지 少年한 셸링의 追從者로 自甘하엿스나 一八〇〇年 頃부터 思想 上의 獨立을 하엿다. 一八〇五年에는 비에-나大學의 教授가 되야 그의 第一主著 「精神現象論」을 草稿하고 翌年에 出版. 나폴레옹 戰禍로 職을 물러나와 暫時 政治 新聞을 發行하다가 一八〇八年 룬베르히의 김나즘의 校長이 되야 一八一六年까지 在職. 一八一八年까지 하이델베르히大學의 哲學 講師로 잇다가 마침내 伯林大學의 教授가 되여 그의 哲學은 이 世에 가장 異彩를 發하엿다. 「헤-겔哲學 卽 哲學」이라고까지 謳歌를 바든 것도 이 世의 以後다.

一八三一年까지 元氣 旺盛하엿스나 流行하든 虎疫으로 死亡. 그의 哲學은 칸트가 남기고 간 純粹觀念論 가장 組織的으로 가장 規模가 크게 가장 徹底하게 發展식힌 것이요, 形式과 內容을 決定하는 것은 辨證法이다. 卽 矛盾을 征服하고 나아가는 正·反·合의 運動 過程이 哲學 解明의 열쇠요, 思惟와 實在의 一致 精神을 主로 하고 自然을 精神의 外皮로 보는 等.

著書는 「精神現象論」「理論의 科學」「哲學的 諸科學 集成 概要」「法律 哲學概要」等.

◇莊子

(名은周, 字는文休)

宋大 道學, 哲學의 巨■ 宋의 蒙縣(河南省歸德府)에서 出生. 年代는 孟子和 略同하나 未詳. 梁惠王과 자조 만나 討論한 일이 잇섯고 楚威王이 그 賢名을 듯고 宰相으로 請함에 冷笑하고 듯지 아니하엿다. 少時에 故鄉의 小吏가 된 적도 잇섯스나 진즉 官道에서 뜻을 쓴코 그의 廣大幽玄한 思想을 詩的 光■이 잇는 渾雄한 文章에 맞기어 老子의 祖術로써 道學哲學史 上 不朽의 基礎를 세웠다. 老子의 思想은 莊子로 因하야 비로소 그 光彩를 完全히 發하게 된 것이다.

莊子は 老子와 한가지로 宇宙의 本體를 「道」라고 일컫고 「無」로 보았다. 그러나 다시 한걸음 나아가 「無」에 압서 「無無」時代가 잇고 「無無」에 압서 또 「無無無」時代가 잇슴을 말하엿스니 「太極而無極」의 意味를 이룸이다. 卽 「道」는 無始無終 無極無限이나 이 「無」의 「道」에서 天地 萬物이 생기고 짜러서 天地 萬物은 무엇 하나 「道」 아니 것이 업다. 그럼으로 人生도 萬物과 한가지로 「道」의 發現인지라 그 運命은 天命을 짜러 左右된다……는 絶對 宿命的 人生觀을 세우게 되엿다.

그의 著書는 五十二篇이나 現存한 것은 三十三篇 맞게 업다. 그 中에 七篇만이 莊子 自筆로 되엿고 나머지 二十六篇은 門人이 篇集한 것이다.

#### ◇쇼펜하우엘

(Arthur Schopenhauer, 1788—1860)

獨逸의 非理性的 觀念論을 道唱한 哲學者. 푸로시아의 쾰히에서 出生. 一八〇九年 쾰히大學에 入學하여 爾後 칸트플라톤 自然科學 印度哲學 等を 깊히 研究하엿다. 一八二〇年 柏林大學 講師가 되엿다가 同三一年 프랑크푸르트로 引退.

쇼펜하우엘은 文場이 玄妙하고 思想은 로-맨派의 色彩를 띠었스나 그것 췌에 긋치지 아니하고 巧妙하게 新時代의 科學思想과 플라톤의 이데아論 칸트의 認識論 그리고 멀니 印度의 吠陀의 汎神論까지 加味하여 構成하엿다.

그는 이러케 말하엿다. 卽 世界는 自己 表象이다. 그런데 自己 意識의 基礎는 意志다. 그럼으로 萬物은 意志의 發現이다. 그런데 다시 低級 慾望은 漸次 高級 意志의 發現으로 옮겨가려고 서로 투쟁한다. 그러나 이 高級의 發現은 언제나 低級의 發現을 희생한다. 世界 全體는 一個의 大意志의 調和된 發現이다. 個體는 그 中에서 노상 싸우고 잇다. 그럼으로 世界의 本體는 苦痛이요, 快樂은 消極的 觀念이다. 이 苦痛에서 버서 나랴면 美의 境으로 드러가야 할 터인데 이 美의 境이라는 것이 一時的이지 永久的이 아니다. 그럼으로 苦痛을 버서 나랴면 苦의 原因인 意志의 個體 發現을 絶根하여야 한다.

이 科學을 基礎로 한 그의 厭世觀은 만흔 迎歡을 바덧고 짜러서 그것을 誤信하고 自殺을 한 사람도 만히 잇다.

主著는 「充足 理由의 四根에 對하여」 「意志 及 表象으로의 世界」 「自然界의 意志」 等.

#### ◇상자

(姓은 公孫 名은 鞅)

周末 戰國時代의 法律家 兼 政治 思想家. 어려서부터 刑名의 學을 배웠고 처음 魏에서 官職에 잇다가 뒤에 秦의 孝公의 宰相이 되어 富國 强兵策을 세워 國威를 만히 펼치었다.

그의 中心思想은 韓非子와 같치 以法治國이니 「一에 法 二에 信 三에 權.」이라 하여 法을 가장 重示하였고 「人民은 法을 遵守하되 異義가 업슬 것이라」하야 賞과 罰을 極히 峻嚴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는 道德과 學問을 排斥하고 文學亡國論을 主唱하였다.

孝公이 죽은 뒤에 그의 平素의 峻嚴한 刑罰 새문에 忿怒하였든 사람들이 周의 顯王에게 참소를 하야 穽刑을 맞고 말었다. (紀元前 三三八年)

저서는 「商子」二十九篇. 現存한 것이 二十四篇

#### ◇타고-르

(Sir Rabindranath Tagore, 1861-)

印度의 詩人이요, 哲學者. 칼카타에서 出生. 어려서 慈母를 여희고 朝夕으로 그를 思慕하며 大自然 속에서 時를 읊고 冥想을 한 것이 그의 天才的 詩想이 隱然 中에 洗鍊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十六歲때에는 발서 長時 「카셰카니」를 出版하였고 翌年에 次兄과 가치 런던에 가서 數個月 머물다가 도라와 十七年間이나 杼지스江岸인 시라이다에서 田園生活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愛妻와 둘이나 되는 딸을 일코 그 悲哀에서 奮히 이어나 一九〇一年에 산치니케탄에다 小共和國을 建設하라고 爲先 學校를 하나 세웠다. 그는 自己의 理想을 實現함에는 人材를 養成하여야 될 것을 느낀 새문이다. 一九一二年에 詩集 「園丁」을 안고 歐米를 巡遊하면서 各大學에서 講演을 하였다. 이 講演을 基本삼어 「生의 實現」을 著述하고 그것으로 노-벨賞을 바뎠다.

그는 西歐의 文明을 區別과 對立과 憎惡와 征服의 文明이라고 痛罵하고 印度의 文化야말로 大森林 속에서 자라나 그 向하는 바는 人生과 萬象을 親和케하며 生의 實現을 爲한 것이라고 主唱하였다.

그는 또한 熱々한 愛國者다. 그는 안니-베산토 夫人이 自治運動을 이르키자 그에 眞心으로 同情을 하였고 杼디 運動에도 參加하였스며 그를 機會로 英國에서 바든 稱號와 勳章을 全部 政府에 返還하였다.